

미카 아처 글그림, 김난령 옮김



연관 키워드

#자연 #관찰 #환경 #사계절 #바람 #시

“바람아, 오늘은 어떻게 불 거야?” 보이지 않는 자연을 온몸으로 감각하는 그림책

자연을 ‘설명’하지 않고 다시 ‘경이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그림책

칼데콧 아너 수상 작가 미카 아처가 신작 그림책 『바람 관찰자(Wind Watchers)』로 국내 독자들을 찾아온다. 이 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인 ‘바람’을 아이들의 감각과 시선으로 따라가며, 계절마다 달라지는 바람의 표정과 움직임을 시적 언어와 압도적인 콜라주 예술로 담아낸 작품이다. 미국 현지에서도 출간 직후부터 “아이들이 실제로 바람을 느끼게 만드는 그림책”, “계절의 변화를 몸으로 경험하게 하는 작품”이라는 호평을 받으며 주목받고 있다. 미카 아처는 『나 진짜 궁금해!』로 미국 최고 권위의 그림책 상 중 하나인 칼데콧 아너상을 수상하며 세계 그림책계의 주목을 받은 작가다. 그녀의 작품 세계는 자연을 단순한 정보나 학습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대신 아이들이 세상을 처음 바라볼 때 느끼는 “놀라움”과 “질문”의 감각을 복원하는 데 집중한다.

보이지 않는 바람을 ‘만질 수 있게’ 만드는 콜라주 예술

미카 아처는 직접 염색한 종이를 오리고 겹쳐 붙이는 독창적인 ‘오일 콜라주’ 기법으로 유명하다. 『바람 관찰자』에서는 형태도 색도 없는 ‘바람’을 겹겹이 쌓인 종이의 질감과 움직임으로 시각화해 냈다. 꽃잎을 흔드는 봄바람, 연을 띄우는 여름바람, 낙엽을 몰고 오는 가을바람, 차가운 공기를 데려오는 겨울바람까지.

독자들은 책장을 넘기며 단순히 바람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람의 방향과 온도를 손끝으로 느끼듯 경험하게 된다. 미국 『퍼블리셔스 위클리』는 이 작품에 대해 “계절을 따라 바람과 만나는 경험을 서정적으로 담아냈다”고 평했으며, “풍부한 질감의 콜라주와 리드미컬한 문장이 조화를 이룬다”고 소개했다. 또 『커커스 리뷰』는 “기쁨과 시성이 살아 있는 작품”, “사계절 내내 독자들을 즐겁게 할 그림책”이라고 호평했다.

“아이들은 작은 디테일을 오래 바라본다”

미카 아처는 오랜 시간 유치원 교사로 일한 경험이 있다. 그녀는 아이들이 자연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늘 깊은 영감을 받아왔다고 말한다. 어른들에게는 단순한 날씨 변화일 수 있는 바람도, 아이들에게는 매일 다른 얼굴로 찾아오는 살아 있는 존재다. 『바람 관찰자』 속 아이들은 바람에게 묻는다. “오늘은 어떻게 불 거야?”

이 질문 하나로 책은 설명 중심의 자연 학습서가 아니라 자연과 대화하는 감각의 세계로 독자들을 이끈다. 빠른 자극과 정보에 익숙해진 시대, 이 그림책은 잠시 멈추어 천천히 바라보는 힘, 즉 ‘슬로우 루킹(Slow Looking)’의 경험을 선물한다.

예술성과 교육성을 함께 갖춘 융합적 사고력(STEAM) 그림책

『바람 관찰자』는 감성 그림책이면서 동시에 교육 현장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작품이다. 바람, 날씨, 계절 변화라는 과학적 주제를 콜라주 예술과 감각적 언어로 풀어내며 STEAM 교육의 이상적인 사례를 보여 줄 수 있는 작품이다. 미국 도서관이나 교육 현장에서도 “책을 읽고 아이들이 밖으로 뛰어나가 직접 바람을 느끼게 만드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책은 다수의 그림책과 아동서를 번역하며 깊이 있는 언어 감각을 보여 준 김난령 번역가가 옮겼다. 원서 특유의 시적인 리듬과 반복의 호흡을 살리면서도, 한국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감각할 수 있는 언어로 섬세하게 옮겨냈다.



바람 관찰자

나무의말



- ▶ 글 : 미카 아처
- ▶ 옮김 : 김난령
- ▶ 출판사 : 나무의말
- ▶ 정가 : 16,800원
- ▶ 분량 : 40쪽
- ▶ 대상 : 초등학교 3~4학년

교과 연계

[국어]

[3학년 1학기]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어요 5. 중요한 내용을 적어요 6. 일이 일어난 까닭 10. 문학의 향기

[3학년 2학기] 1. 작품을 보고 느낌을 나누어요 3. 자신의 경험을 글로 써요. 4. 감동을 나타내요

7. 글을 읽고 소개해요 9. 작품 속 인물이 되어

[4학년 1학기] 1.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요 2. 내용을 간추려요 5. 내가 만든 이야기

10. 인물의 마음을 알아봐요

[4학년 2학기] 1. 이어질 장면을 생각해요 4. 이야기 속 세상 9. 감동을 나누며 읽어요

국어

(1) 듣기·말하기

- [4국01-01] 중요한 내용과 주제를 파악하며 듣고 들은 내용을 요약한다.
- [4국01-02]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내용을 예측하며 듣고 말한다.
- [4국01-05] 목적과 주제에 알맞게 자료를 정리하여 자신감 있게 발표한다.

(2) 읽기

- [4국02-01] 글의 의미를 파악하며 유창하게 글을 읽는다.
- [4국02-02] 문단과 글에서 중심 생각을 파악하고 내용을 간추린다.
- [4국02-03] 질문을 활용하여 글을 예측하며 읽고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한다.
- [4국02-06] 바람직한 읽기 습관을 형성하고 읽기에 대한 자신감을 기른다.

(3) 쓰기

- [4국03-01]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갖추어 문단을 쓴다.
- [4국03-04] 목적과 주제를 고려하여 독자에게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쓴다.
- [4국03-05] 쓴 글을 함께 읽고 문장과 문단을 중심으로 고쳐 쓰며, 자신감 있게 글을 쓰는 태도를 기른다.

(5) 문학

- [4국05-01] 인물과 이야기의 흐름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 [4국05-02]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 속 세계와 현실 세계를 비교하여 작품을 감상한다.
- [4국05-05]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작품을 즐겨 감상하는 태도를 지닌다.

미술

(2) 표현

- [4미02-01] 관찰과 상상으로 아이디어를 떠올려 표현 주제를 구체화할 수 있다.
- [4미02-05] 미술과 타 교과를 관련지어 주제를 표현하는데 흥미를 가질 수 있다.





그림책을 읽기 전 생각해 봅시다.



표지를 보고 제목을 상상하고, 제목을 정한 까닭을 써 봅시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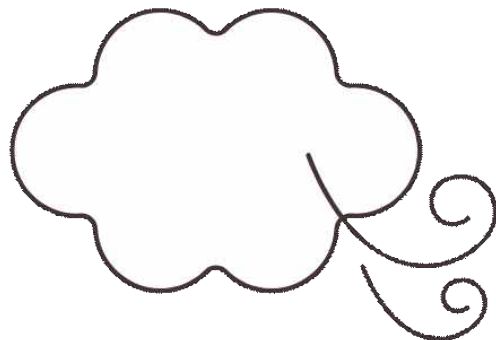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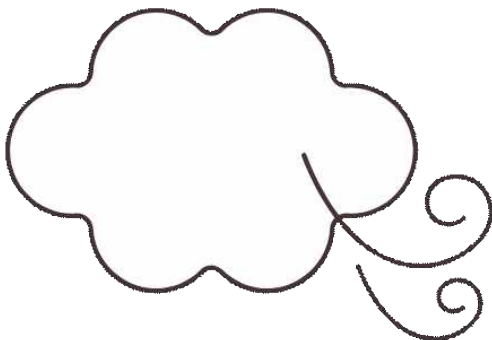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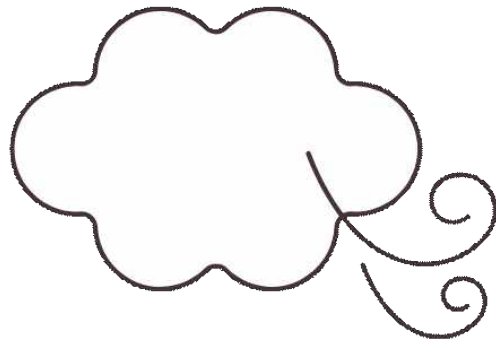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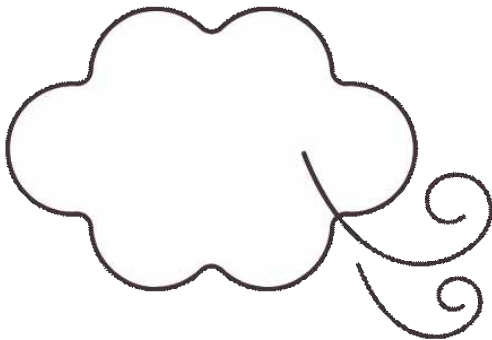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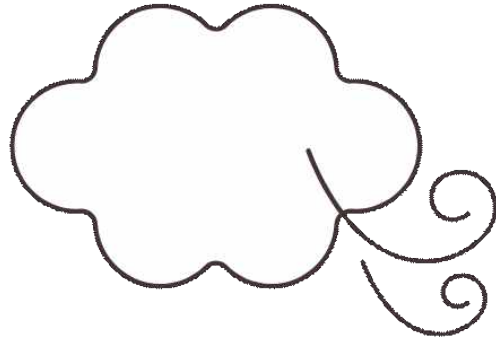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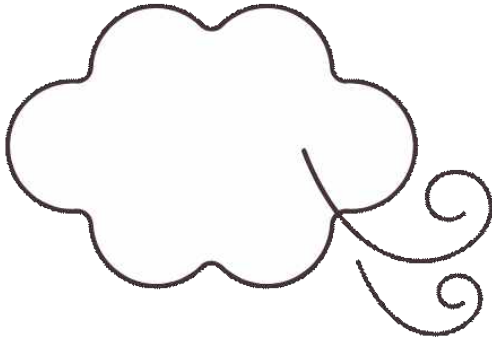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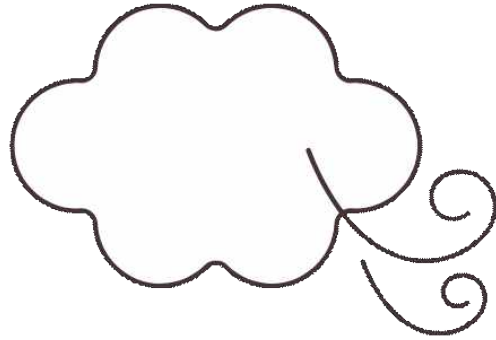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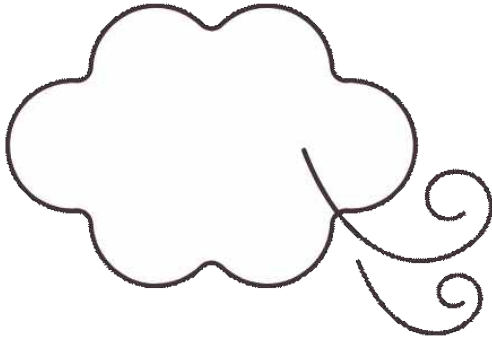
이유



『바람 관찰자』를 읽기 전 생각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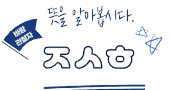
‘바람’이라는 말을 듣고 떠오르는 것을 적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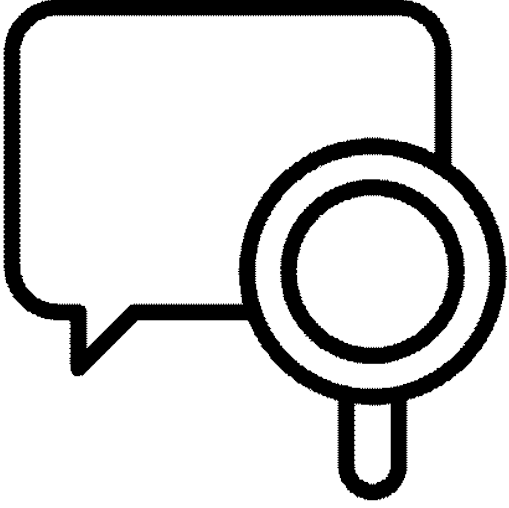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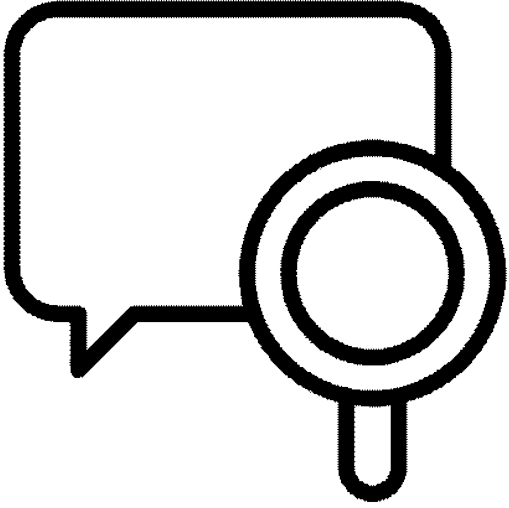




『바람 관찰자』를 읽기 전 생각해 봅시다.

『관찰』의 의미를 알아보고, 주변에서 관찰하고 싶은 것을 찾아봅시다.

관찰	 <u>사람</u> 이나  <u>동물</u> 을 주의하여  <u>자연</u> 살펴 보는 것
----	---

관찰하고 싶은 것	관찰하고 싶은 이유
	
	





『바람 관찰자』를 읽기 전 생각해 봅시다.

 내가 ‘바람 관찰자’라면 바람의 어떤 모습을 관찰하고 싶은지 생각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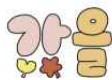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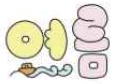




『바람 관찰자』를 읽으면서 생각해 봅시다.



바람 관찰자를 읽으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바람의 모습을 꾸며주는 말을 찾아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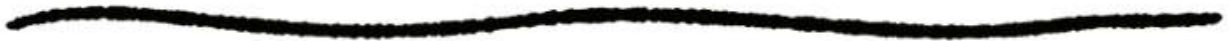




『바람 관찰자』를 읽으면서 생각해 봅시다.



바람 관찰자를 읽으며 마음에 든 구절을 따라 써 봅시다.





『바람 관찰자』를 읽으면서 생각해 봅시다.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매일 느낀 바람을 모아봅시다. ▶ 단어나 문장으로 쓰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바람 관찰자』를 읽고 나서 생각해 봅시다.



바람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도구를 만들어 봅시다.





『바람 관찰자』를 읽고 나서 생각해 봅시다.

 바람을 느끼는 모습을 표현해 봅시다.





『바람 관찰자』를 읽고 나서 생각해 봅시다.



바람을 느끼는 나의 모습과 표정을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





『바람 관찰자』를 읽고 나서 생각해 봅시다.

📖 바람 관찰자가 되어 ‘지금’의 계절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을 그려봅시다.

